

코로나19 위기, 함께 이겨요!

상생선언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다섯 번째 이야기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선언’을 만나봅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시
JEONJU CITY

상생뉴스

2020년 04월 21일 화요일 1면

코로나19 위기,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극복한다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선언



4월 21일 전주시와 시의회, 지역기업 9개 단체, 한국노총 전북본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이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선언을 발표했다. 지역 노사민정이 실직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해고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전주시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사업주 부담금(10%)의 전액을,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료를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상생기금 500억 원을 조성하여 상생선언 참여 기업이 고용유지 목적으로 대출받을 경우 2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차액 일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해고 없는 도시 선언은 다함께 기쁨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위기극복의 선결과제는 고용유지로 해고를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월 13일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협약식을 진행했으며, 전주지역 175개 사업장이 동참 의사를 밝힌 가운데 79곳은 실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유지에 앞장서기로 했다.



文대통령 ‘해고 없는 도시’ 선언, 전국 확산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2일 SNS를 통해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선언은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며 “상생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사민정의 상생선언과 지원방안에 대해 A업체 직원은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했는데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B업체 대표는 “노사민정이 고통분담을 한다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오늘을 이겨냅시다

문재인 ✅

Following

전주시가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입니다.
기업들은 고용유지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지자체는 열악한 사업장에 보험료를 지원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이끌어내고,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분담으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사회적 약속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일자리 지키기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실천입니다. 선언에 함께한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해고 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일자리가 경제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기업과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전체와 연결 됩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을 잡고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로 일자리 지키기에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정부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5.6K Retweets 9.4K Likes

Comment Share Like Post

‘해고 없는 도시 전주’를 위한 노사민정의 다짐

노
勞

코로나19로 전무후무한 사태를 겪고 있지만 노사관계가 상생,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나누고, 버틴다면 이번 위기는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최한식 한국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사
使

어려운 기업 경영환경 속에서도 희망은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를 유지해 나가는 등 기업의 경영쇄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임동욱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장

민
民

지역 주체들이 한마음으로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위기극복 방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

정
政

일자리는 개인과 가정, 지역을 지키는 일종의 사회적 방파제입니다. 해고 없는 도시로 가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강력한 사회적 연대로 시민들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



노사관계 안정, 일자리창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고용안정을 유지하도록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코로나에 맞선 상생…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는 이렇게”



전주 노사민정은 ‘현장지원종합상황실’을 꾸려 고용보험 가입, 고용유지지원금 컨설팅, 각종 프로그램 접수·안내, 공공요금 감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자금 지원

- ◆ 고용유지 특별지원금 조성 지원
- ◆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지원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하여 상생선언 참여기업이 고용유지 목적으로 대출 시 2억 원 내에서 이자 차액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자금 대부기간(기준 최대 3년)을 추가 연장(1년)
* 필요재원은 시에서 부담



고용유지 지원

-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 고용보험 가입지원
(보험료 등 지원)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업종 전환 등 종합컨설팅 지원

국가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나머지 사업주 부담분(10%)의 전액을 시에서 지원(3개월 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보험료를 6개월간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유도

고용노동부, 노무사회, 근로복지공단 등과 '고용유지현장지원단' 운영
* 고용보험 가입, 고용유지지원금 컨설팅, 지방세 유예 등 통합서비스 제공



근무인력 재배치 지원

- ◆ 고용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 프로그램 참여기업
고용유지 훈련수당 지급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전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
* 교육훈련은 훈련기관에서 실시

교육 프로그램 참여기업에 훈련수당 지급(시 부담)
*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 기업당 월 300만, 6개월 한도 지원

코로나 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선언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란이 현실로 닥쳐온 지금, 일자리는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이 위기에 빠지는 것은 물론 순식간에 사회가 마비되는 큰 혼란을 불러옵니다. 일자리는 사회의 혈맥이자 시민의 생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손을 맞잡고 이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회적 연대가 이 파도를 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분담한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는 또다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해고 없는 도시 전주」로 가기 위한 길에 동참을 선언하고 연대와 상생을 약속합니다.

- ① **참여기업**은 가족과도 같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어려움 앞에서도 고용을 유지할 것이며, 코로나19에 맞서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 ② **전주시**는 기업이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며, 일자리 지키기와 안전망 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 ③ **전주시의회**는 예산지원 등 기업이 해고 없이 고용유지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 ④ **유관기관, 지역금융권과 민간 전문가**들은 해고 없는 도시 전주가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힘을 모아줄 것입니다.

2020년 4월 21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 기업 노사도 동참했습니다

동일고무벨트(주) 노사
2.14

상생문화 구축 위해 '20년 임협 무교섭 합의

- » 기본급 정액 2,650원(4.56%) 및 하계 휴가비 30만원 인상

신세계면세점(부산점) 노사
3.3

매출 급감으로 자발적 무급휴직 결의 및 실시

- » 노조, '무급휴직' 의결 및 사측에 공문 발송
- » 사측, 희망자 무급휴직 실시(3.9. ~ 4.30.)

경원여객자동차(주) 노사
3.25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금 보전 등 합의

- » 만근(운행일수 12일)시 지급하던 수당을 운행일수가 기준에 미달해도 지급
- » 임금은 만근 기준으로 선(先) 지급하고 운행 정상화 시 정산하도록 합의

한국동서발전(주) 노사
4.20

코로나 19 위기극복 노사특별합의서 체결

- »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격려금·포상금 관광상품권 대체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등

(주)경남은행 노사
4.23

지역경제 위기극복 위한 노·사 공동선언

- » 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용, 지역화폐·온누리 상품권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 » 전 직원 자발적 성금모금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등